'전쟁'을 매개로 본 유럽정치사

17, 18세기 유럽전쟁 새롭게 기술한 「전쟁의 시대」

워털루전투 상상도.

「전쟁의 시대」(*"THE AGE OF BATTLE, The Quest for Decisive Warfare From Breitenfeld to Waterloo"* 579 pp.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는 戰爭史에 관한 한 미국 제일의 권위자에 의해 씌어진 중요한 저술이다. 미국의 전쟁사를 알고자 하는 이라면 그 누구도 지금 템플대학 역사학 교수로 재직중인 러셀 웨이글리(Russell F.Weigley)의 저작들을 무시하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는 미군의 역사와 미국 군사전략의 특징, 그리고 특히 2차대전에서 미군이 행한 전술을 깊숙이 다루어온 사계의 전문가이다.

이 책 「전쟁의 시대」는 1815년 워털루전쟁에 이르는 17~18세기의 유럽전쟁사에 대한 본격적 저술이다. 여기서 저자는 단순히 전술·전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보다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들면 근대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인 세금의 수취, 징병 그리고 국민적 단합 등의 국내문제와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킨다. 필자가 「전쟁의 시대」 속에서 근대국가의 군사적 야망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새로운 차원에서 다루는 시각이야말로 여타 전쟁사 저술들과 현격히 다른 점이다.

물론 침략적이고 장기전을 치러내는 고도의 능력은 딱히 17세기 이후의 근대국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의 국가라면 그 이전에도, 가령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나 로마공화국도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은 자신들의 내부정치로 인해 자멸하고 말았다. 로마공화국이 제국으로 변하는 식으로…. 뿐아니라 중국의 경우 그러한 고도의 침략적 능력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적 경계를 넘어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문화적 영향력으로써 제국을 건설하곤 했다. 장기적인 침략전쟁은 목초지대의 기마민족들에게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몽고는 가장 강력한 침략국가였다. 그러나 몽고제국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던 데 반해서 아랍제국과 오토만 터키는 정복을 통해 일정한 군사적 의미의 집단을 벗어나 정치학적 국가로 전환한 최초의 기마민족들이다. 따라서 저자는 유럽지역에 관한 한, 로마의 몰락 이후 1천여년 이래 최초의 전쟁국가 발생시기는 종교개혁 이후라고 기점을 잡는다.

로마의 군사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기복무 장교단'에 있었다. 각 군단의 군인들로부터 차출된 정예들을 중심으로 특수병단을 구성하여 최전방에 내세움으로써 군사적 영역을 확대시키는 중추로 삼았던 것이다. 이들이 브리타니아 지방(현재의 영국)까지 진출했던 것은 하드리안 장벽에서 발견된 그들의 집단무덤의 묘비명에서 확인되고 있다. 브리타니아 원주민 아내와 결혼한 로마령 아프리카 출신의 로마군 장교가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로마식 장기복무 장교단은 후기 종교개혁 시기에 유럽인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재구성되어 전쟁국가의 전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분위기를 틈타 장교들뿐만 아니라 사병들에게까지 번진 라틴어 및 그리스어 연구열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로마시대의 군사조직 및 군사전략, 그리고 전술에 관한 책자들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전쟁사에 이름을 남긴 탁월한 軍사상가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16세기 스페인과의 전쟁을 총지휘했던 낫소의 백작이자 오렌지의 공작 마우리스公이고, 또하나는 1617년 최초로 근대적 군사학교를 설립했던 낫소의 공작 존 2세였다. 이들이 고대로마의 전술교범 저자들을 소개함에 따라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에게 큰 영향을 미쳐 유럽 최초의 국민군을 창설하게 만들었다.

용병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당시 유럽국가들에게 구스타프의 착상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민군을 조직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통해 동일한 언어, 동일한 종교의 군대가 갖는 큰 효율성이 눈에 띄게 되어 점차 통치영역 내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징병하게 되는 근대병제도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18세기에 들어 모든 유럽군대는 전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민족적 성향을 띠게 되었으며 장기근무병제도와 직업장교 제도가 뿌리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군대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한 것은 물론인데 특히 해군의 경우가 그랬다. 로마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크기와 기동력을 자랑하게 된 것이 근대 유럽의 해군이었다. 해군, 그 가운데 영국해군과 프랑스 해군은 참으로 가공할 무력의 수단이었다. 수개월 동안 격리되어 독립적으로 군사활동을 수행하면서 해상에서 부딪치는 어떤 비유럽 국가의 선단도 괴멸시키고, 나아가 정예 육군들을 실은 수송선단을 호위하여 목적지(특히 식민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유럽국가의 식민정책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또다른 사정이 전개되고 있었다. 군단 전투의 대명사인 로마군단은 제국을 자멸로 이끌 내전적 상황-말하자면 로마군단끼리의 전쟁은 한번도 겪지 않았다. 반면 근대 유럽국가 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무기체계, 전술학 그리고 병참학에 대한 학습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창설되는 군단들끼리 갈등이 첨예화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예를 들자면 오래도록 국내에서 전쟁이 수행되었던 장미전쟁이나, 또는 백년전쟁 같은 것) 이에따라 근대 유럽국가의 내전적 상황은 계속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원인이었다.

이 책 「전쟁의 시대」는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론」의 발전적 전개라고 할 만하다. 軍思想史의 태두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그리고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첩경은 더욱 잘 싸우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웨이글리는 "전쟁의 시대"에 있어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파국"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이 전쟁의 시대는 워털루전쟁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 그 주장의 논리는 분명하지 않은 만큼 차후 저자의 새 저서를 통해 그 시대구분이 명료해지길 기대해본다.

작가부부들의 사랑과 결혼 파경의 파노라마

퀸스 칼리지의 영문학 교수이자 「에즈라 파운드 : 그 외로운 화산」의 저자이기도 한 존 티텔(John Tytell)의 「열정의 인생」(*"PASSIONATE LIVES, D. H. Lawrence, F. scott Fitgerald, Henry Miller, Dylan Thomas, Silvia Plath-in love"*, 328pp. New York : Birch Lane Press/Carol Publishing Group.)은 다섯명의 근대 낭만주의 작가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파혼에 이르는 삶을 그린 이야기이다. D. H. 로렌스, 스콧트 피츠제럴드, 헨리 밀러, 딜런 토마스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는 동히 "맹렬한 사랑의 힘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함께 집필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그 동기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집필동기가 아니었음은 이들이 또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D. H. 로렌스는 유부녀 프리다 위클리의 혼을 뺏아 결혼에 골인하였다. 프리다는 관습에 물들지 않은 천재적 재능의 소유자 로렌스에게 천생연분의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늦게나마' 알았던 셈이다. 그녀는 로렌스의 천부적 자질과 자신의 능력을 합치면 인습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삶을 고양시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녀는 로렌스의 문학작품과는 달리 '인간 로렌스'에게는 역시 아내에게 인습적 통제를 가하려는 수컷의 본능이 간직되어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와 흡사하게 젤다 새이어는 스콧트 피츠제럴드의 산문이 빚어내는

매력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피츠제럴드가 그들의 가정생활 모두를 자신의 작품을 짓는 데 몰두시켜버린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자신도 작가였던 젤다는 자신의 삶이 모두 남편의 작업에 퍼부어져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말하자면 자신의 주관에 의한 삶을 그려내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로렌스가 결혼이란 것이 일종의 권력을 향한 싸움터라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던 만큼이나, 피츠제럴드는 경쟁에 깃들게 마련인 '거래'의 기술을 익히지 못했던 것이다.

로렌스와 제럴드만큼이나 헨리 밀러도 결혼을 자신의 문학을 위한 소재로 여기는 정도였다. 그리고 헨리 밀러에 관한 기술인, '헨리와 준, 그리고 아니아스' 편은 「열정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초상으로 그려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밀러는 다섯번 결혼했는데, 그 모두가 제 각각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두번째 결혼은 특기할 만하다. 두번째 부인 준은 밀러와 처음 만났던 1923년 당시에 타임스 스퀘어의 무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난 문학적 자질을 갖추지 않았고 그저 관심이라면 자신의 몸뚱아리를 수단으로 어떻게 멋있는 남자를 만날까 하는 데 있었다. 이들의 결혼 초기에는 준은 어느 정도 헨리 밀러와의 삶에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가령 밀러의 작품집에 '준 밀러에게 바친다'는 헌사가 기명될 정도로…. 그러나 준은 밀러가 파리로 간 이후에는 그러한 행운을 더이상 잡지 못했다. 거기서 그는 아니아스 닌을 만나게 되는데 밀러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문학적 감성의 메아리를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밀러가 폭발적인 사랑의 분출을 뒤늦게 터뜨렸다면 딜런 토마스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러했다. 캐이틀린 맥나라마와 결혼한 토마스는 적어도 첫아기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피츠제럴드의 결혼생활과 거의 흡사했다. 다만 화려한 물질적 풍요와 히스테리만 차치한다면. 캐이틀린은 문자 그대로 토마스의 친구로서 살았다. 남편과 술도 함께 마시고 술주정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았다. 싸우면서 사는 것도 결혼생활의 한 방식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토마스에게 캐이틀린은 필요한 존재로서 항상 남아 있었던 때문이다. 케이틀린은 토마스의 창조적 재능의 발휘를 위한 촉매로 존재했던 것이다.

여류작가 실비아 플라스도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시인이었던 남편 테드 휴즈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위한 촉매로서 필요했다. 이 편에서 저자는 테드 휴즈가 플라스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잡문들을 통해 결혼생활을 추적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하거니와 그 정리의 맥락이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수긍가게 한다.

「열정의 인생」은 여성들이 짝을 맺는 것이 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성공적이었다는 명제(?)에 대한, 그리고 가정 내의 권력을 위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던가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일 수도 있다. 이 책의 여자들, 작가의 아내이거나 자신이 작가이거나간에 모두 다 육체적으로 대단히 억세었는데-가령 프리다는 접시를 날려 로렌스의 머리를 깨기도 했고, 플라스는 분노를 참지 못해 자해하기도 했다.

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들 낭만주의 작가들간에 또다른 인연을 제시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피츠제럴드는 로렌스의 광대한 세계관을 부러워했다든지, 토마스는 신혼여행중에 신부인 캐이틀린에게 로렌스의 작품을 읽어주었다든지, 플라스는 미국여행중 토마스의 호텔 방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든지…. 요컨대 "한 시인이 지금 쓰고 있는 詩作행위는 또 다른 시인을 낳을 물레를 잣고 있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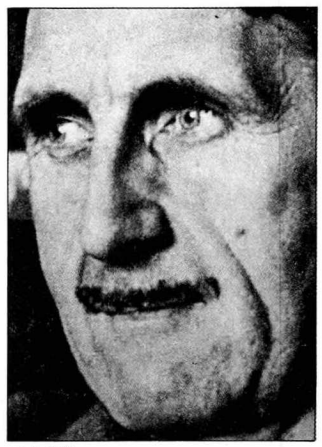
기존의 편견 바로잡는 오웰傳記 출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고인이 된 지 40여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그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옥스포드 사전 속에는 "오웰的: '조지 오웰'의 작품, 특히 풍자적인 소설 「1984년」에서 제시되는 특징 또는 연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오늘날 오웰이라는 이름이 던져주는 이러한 뉘앙스는 작가인 매리 맥카디, 그리고 노만 메일러를 위시하여 뉴욕타임즈 등 언론매체들에 의해 정착되어 왔다. 개중에는 오웰이라는 말을 '미래의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달리는 언어의 타락, 말하자면 言語表象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오도되거나 소멸되어 버린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두 이미지를 말끔하고 적절하게 결합시켜 당대에 제시한 것이 오웰의 큰 성취였다고 하겠다. 그의 주된 저술시기인 30년대와 40년대는 나치즘과 스탈린 체제로 상징되는 전세계적 독재의 시대였다. 그는 이 독재에, 그리고 독재자들이 내세우는 교의에 반대하여 글을 썼다. 그는 "나는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 못지않게 그는 언어의 타락에 반대하여 올바르고 솔직한 언어 사용을 위해 글을 쓴다고 말한 적도 있다.

잘 알려진 두 책, 「동물농장」과 「1984년」은 절대권력과 언어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절대권력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들, 절대권력과 삶, 그리고 언어의 관계는 상호 불가분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나쁜 정치는 언어를 타락시키고 타락한 언어는 나쁜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국가의 여러 惡을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명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오웰의 '명백한 진리'란 사회주의적 진실만은 아니다. 그는 정치적이기 이전에 인간적이었으며, 정치적 언어로 불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훨씬 전부터 불의에 대한 감각을 키워왔었다. 생각컨데 그가 불의의 환경 속에 태어났다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닐 터이다. 그의 아버지 아서 블레어(Arther Blair)는 인도 식민당국의 아편무역과 관련된 미관말직을 오래도록 맡았는데, 이곳에서 에릭 블레어(조지 오웰의 본명)는 1903년에 태어났다. 그의 어린시절에 대해 이 책, 「오웰」("*ORWELL, The Authorized Biography*", 497pp.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의 저자 미카엘 셀던(Michael Sheldon)이 잘 설명하고 있듯 집에서도, 영국으로 돌아가 이튼고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첫 직장인 버마주재 인도제국 경찰의 장교로서 복무할 때에도 그는 전제정치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꼈다. 현실정치의 폭압성을 목도하면서 그는 이를 증오하게 되고 따라


조지 오웰.

서 그는 자신의 계급에 대한 충성을 거두고 억압받는 전세계의 피지배계급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오웰은 영국의 제국주의를 증오하면서 버마로부터 돌아왔고, 공산주의를 증오하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돌아왔다. 바로 이 맥락이 그가 정치작가로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로 선회하는 기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란 독특한 '오웰적' 사회주의였다. 그가 인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슬럼가를 배회하면서 겪은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명료한 진리를 확신 시켜주었다. 즉 불의란 가장 큰 사회적 죄악이라는 것. 윤리적으로 올바른 위치란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실패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성공은 부패의 시작이라는 것. 상식이란 체제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 고상함과 상식은 일반 민중에게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결코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웰이 그의 저서를 통해 제시한 사회주의는 분명 잘 짜여진 체계적 사회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그의 사회주의를 가지고는 한 나라는커녕 한 마을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잘 짜여진 체제가 좋은 정치가 되리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두 가지의 비전, 이를테면 가난하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살아갈 행복한 삶, 가령 평범한 노동자가족이 일요일 오후 달각거리는 부엌에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한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비정치적이고 평상적인 삶의 행복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몫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편 그는 냉혹한 현실-자신이 꿈꾸고 있는 비전을 짓밟을 인간의 잔인성과 탐욕을 무시하지 않을 만큼 현실적 안목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악마적 속성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나온 작품이 「1984년」이라고 할 것이다.

오웰은 대작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문학형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서도, 또한 모더니즘 문학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서도 중요성과 영향력 면에서 의심받지 않고 있는 희귀한 현대작가의 케이스이다. 그의 예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보다 세계사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성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동안 오웰에 대한 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최근에 상재된 미카엘 셀던의 전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오웰의 전기적 측면, 특히 그의 미망인인 소니아의 회상과 그녀가 소장하고 있는 오웰의 유고가 대폭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셀던의 이 책은 말년의 오웰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셀던의 적확하고 공정한 저술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오웰을 다시금 반추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